



네 **생각**은 어때? 하브루타 꼼꼼 강좌

하브루타의 기본 원리

탈무드 토론의 요소들

18세기에 이탈리아인 랍비 루짜토(Moche Chaim Luzzatto)는 하브루타의 텍스트가 되는 탈무드 토론의 원리가 되는 요소들을 정리했다. 그것은 진술, 질문, 대답, 반박, 증거, 갈등, 해결 등 7가지이다. 이 7가지 요소는 유대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생활 속에서 실천해 오는 과정에서 정착된 하브루타의 기본 원리이다.



▲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질문과 대답을 통한 토론을 실천해 왔다.

- * 진술(statement): 하브루타 짝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 * 질문(question): 짝 중 다른 한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내용에서 의문점을 찾아 날카롭게 질문한다. 이 때 설령 상대방의 생각이 자기와 같다고 해도 동의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질문한다. 예컨대 상대방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같을지라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같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서로 다른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 * 대답(answer): 처음 말을 한 짝이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다.
- * 반박(contradiction): 답변을 들은 상대방이 대답에서 문제점을 찾아 반박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 * 증거(proof): 처음 말한 짝이 상대방의 반박에 대해 논리적인 증거를 대며 자신의 의견을 증명한다.
- * 갈등(difficulty): 증거로 제시된 것들에서 사실이나 진실이 아닌 것들을 찾아 지적한다. 이런 과정이 지그재그 형태, 즉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질문이나 반박에 답하고 그 질문이나 반박의 문제점을 찾아 역으로 질문하게 된다.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교차되고 중첩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
- * 해결(resolution): 짝과 함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책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한다.



▲ 의문점을 발견하면 질문한다.

우리 교육에서의 하브루타 기본 원칙과 과정

위와 같은 탈무드 토론의 원리에 입각하여 하브루타 연구자 전성수 교수는 우리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하브루타의 기본 원칙과 과정을 14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는 학습자에게 하브루타 토론을 습득시켜야 할 교수자 입장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원칙과 과정이다.

1. 하브루타는 질문이 핵심이다. 학습자에게 어떤 지시나 요구, 설명을 하기보다 질문을 많이 한다.
2. 학습자가 틀린 답을 말해도 정답을 알려주지 말고 질문으로 답한다.
3. 하브루타 하기 전에 충분히 내용에 대해 알게 한다.
4.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한다.
5. 질문하고 대화할 때는 학습자에게 집중해서 그의 눈을 보고, 어떤 대답도 막지 않고 수용한다.
6. 학습자의 대답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칭찬한다.
7. 학습자가 남과 다르게 생각하도록 격려한다.
8. 학습자가 모르는 것은 책을 다시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스스로 찾아보게 한다.
9. 많은 내용을 하브루타 하기 보다는 하나의 주제나 내용을 깊이 있고 길게 하브루타 하는 것이 좋다.
10. 다소 어려운 내용도 쉬운 용어로 질문하여 학습자가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11. 모든 일상 속에서 하브루타 하되 하브루타 하는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한다.
12. 집에서 하브루타 하는 경우 잠자기 전에 하브루타 하는 것이 가장 좋다.
13. 어린 학습자라 할지라도 쟁점을 만들어 토론과 논쟁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뇌를 계발하여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
14. 꼭 가르쳐야 하는 원칙이나 가치관은 대화를 통해 분명하게 인지하도록 한다.



▲ 모르는 내용은 책을 찾는 등 스스로 검색하게 한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브루타 교육은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남과 다르게 생각하게 하며, 그 생각을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능력은 상상력이 풍부한 유아기에 키워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데 교육하는 실제 상황에서는 본의 아니게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유아 한 명이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선생님에게 말한다.
 “선생님, OO가 이상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묻는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들어봐도 사실이나 논리에 맞지 않는다. 선생님이 말한다.
 “그래도 친구를 이상해졌다고 말하면 안 되지? 친구에게 사과 해.”
 선생님에게 친구를 이상하다고 말한 유아가 친구를 끌어안고 어깨를 토닥이며 말한다.
 “친구야,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이 간단한 상황과 대화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상한 말을 한 것으로 치부된 유아는 선생님의 개입으로 인해 진짜 이상한 아이가 되어 버렸고, 다른 친구들까지도 그 말을 한 친구를 이상한 아이로 보는 낙인 효과가 생겨 버렸다. 게다가 친구의 말을 듣고 선생님께 물은 아이는 사과를 해야 하는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 되었다. 개인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때의 경험으로 인해 이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랄 수도 있다.

같은 상황에서의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이야기를 듣고 난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한다.

“그래? 선생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생각인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친구에게 칭찬해 줘.”

일단 친구를 칭찬하게 해 줌으로써 문제를 제기한 유아의 입장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유아들에게 말한다.

“방금 OO의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생각이 있지?”

아이들이 모두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래, 아주 특별하게 생각한 OO에게 박수해 주세요.”

모두가 박수한다.

이 상황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학급의 모든 유아가 OO처럼,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남과 다른 특별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 아울러 남과 다르거나 특이한 생각을 했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긴다.

하브루타를 하기 위한 기본 조건

하브루타를 하기 위한 첫 번째 기본 조건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다. 유아기 교실에서부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두 번째 기본 조건은 남과 다른 생각과 방법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상식이나 일반적 관점을 벗어나는 특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분방한 사고력을 키우고, 사고 영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데, 유아기가 가장 효과적인 시기이다. 따라서 유아기 하브루타의 시작은 기초 지식 및 경험이나 순간적인 착상에 의한 말을 많이 시키는 것보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남과 달리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교사가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발문)을 하고 유아 한 명씩 답하게 하며 각자 앞에서 나온 답과 다른 답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교사의 질문을 받고 떠올린 답을 앞서 발표한 유아가 말하는 순간 다른 답을 찾기 위해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른 답을 찾게 된다. 질문도 마찬가지다. 이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질문과 답을 찾는 능력이 길러진다. 그것이 바로 탈무드 토론의 원리나 하브루타의 원칙과 과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기초이다.



브래멘+
하브루타
교육연구소는

전성수 교수님과 함께 하브루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최초로 하브루타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브래멘+ 부설 하브루타 교육 연구소입니다. 유아 및 초중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하브루타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지금도 끊임 없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